



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wanda



홈페이지

르완다 관광

※ 이 자료는 외부 공개된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,
대사관의 판단이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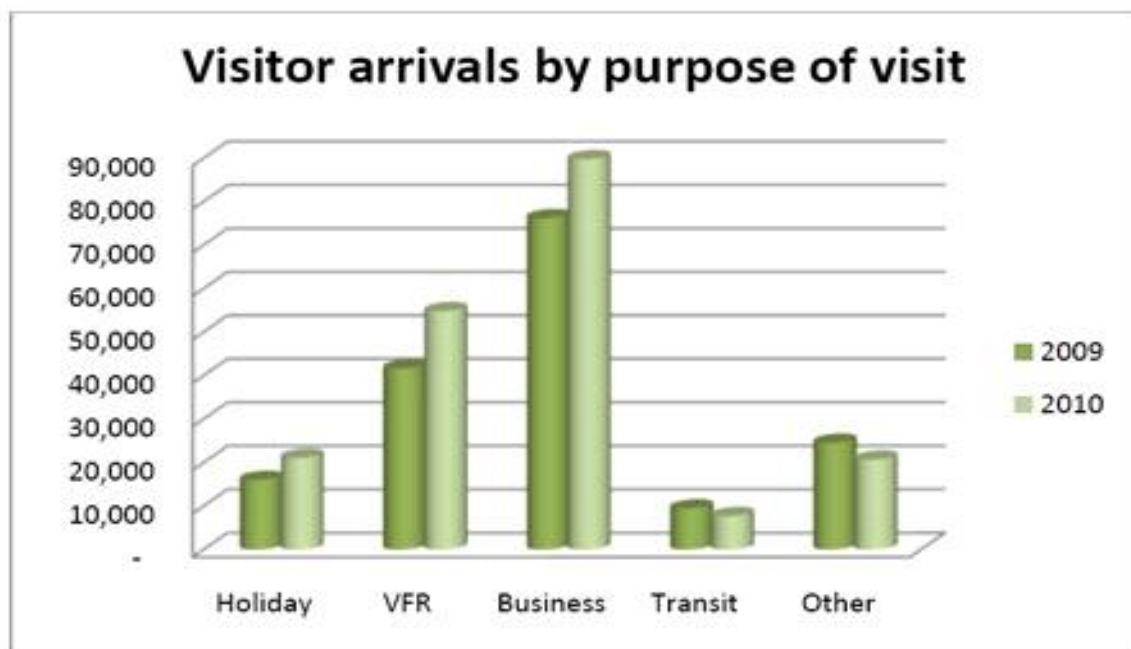
2013. 07. 01
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

- 목 차 -

1. 개관	1
2. 국립공원	2
가. 화산국립공원 (Volcanoes Forest National Park)	3
나. 뉁웨 국립공원 (Nyungwe Forest National Park)	3
다. 아카게라 국립공원 (Akagera National Park)	4
3. 여타 관광지	5
가. 국립박물관	5
나. 자연사 박물관	5
다. 고대 역사 박물관	5
라. 제노사이드 기념관	5
마. 키부 호수 (Lake Kivu)	6
바. 기타	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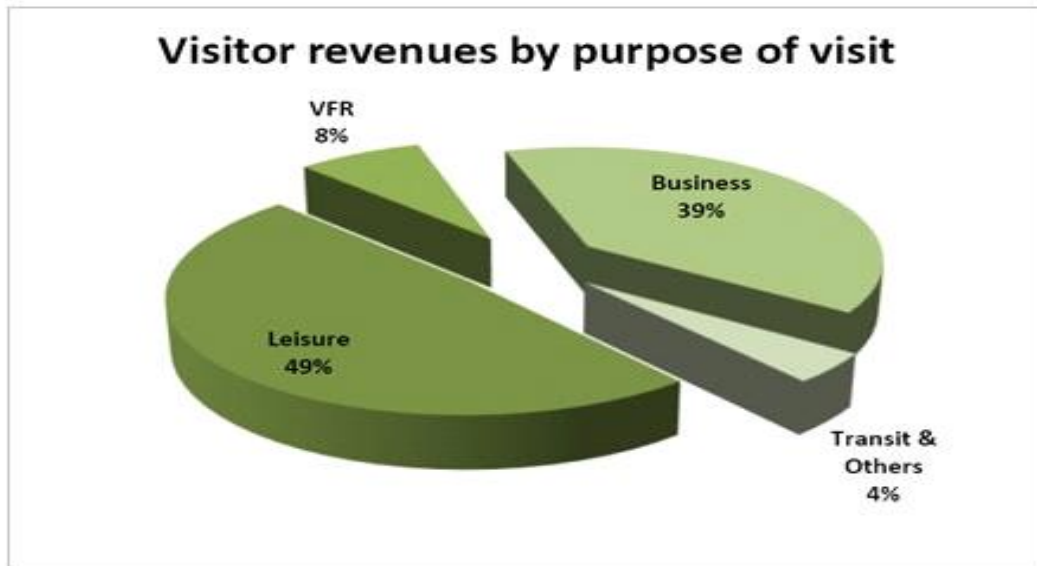
1. 개관

-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불리우는 천 개의 언덕을 가진 나라 르완다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.
- 르완다의 관광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이며, 르완다 정부는 관광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
- Great Rift Valley(동아프리카 협곡)의 중심에 있는 르완다는 4,507m의 카리심비(Karisimbi)산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화산이 있으며, 키부(Kivu) 호수, 야생동물보호구역도 있습니다.
 - 또한 국립공원, 국립박물관, 트레킹(Trekking)등 다양한 관광상품이 있습니다.
- 르완다 방문자 수(2009-2010)는 사업, 친구/친척 방문(VFR; Visit Friends or Relatives) 다음으로 관광(Holiday)순입니다.



[자료출처: 르완다개발청(RDB) 통계자료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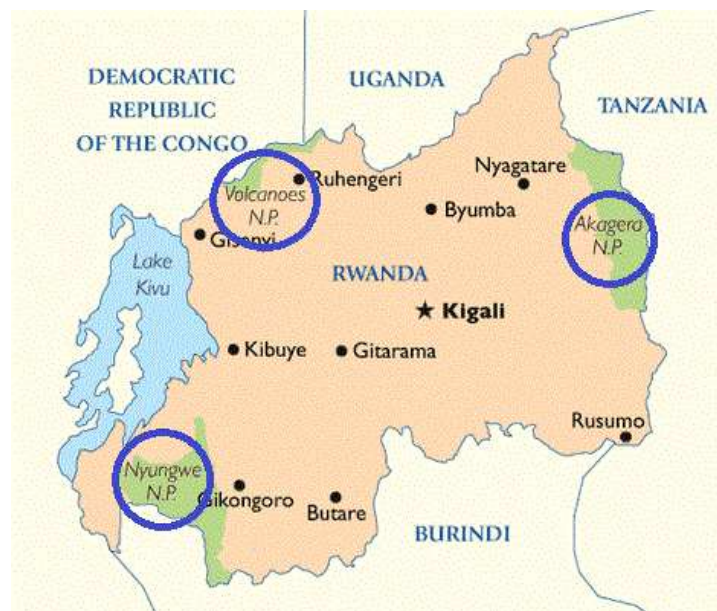
- 한편, 방문 목적별 지출(2010)에 있어서는 관광 분야가 가장 큼니다.



[자료출처: RDB 통계자료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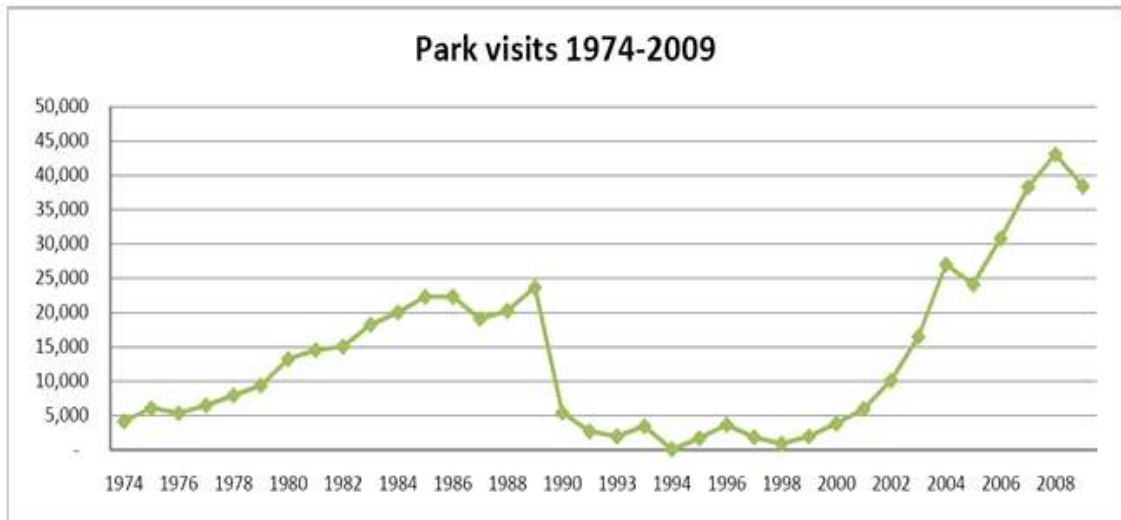
2. 국립공원

《르완다 국립공원(National Park)》



[자료출처: www.goway.com/africa/rwanda]

<<르완다 국립공원 방문객 추세>>



[자료출처: East Africa and Indian Ocean Tourism reports 2011]

가. 화산국립공원 (Volcanoes Forest National Park)

- 수도 키갈리(Kigali)에서 북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무산제(Musanze;옛 Ruhengeri)에 있는데, 가는 길이 험하여 차량으로 약 2시간 가량이 소요되며, 공원 사무소는 무산제의 키니기(Kinigi)에 있습니다.
- 화산 호수와 늪, 목초지 등 다양한 자연환경 속에서 Blue Monkey, 버팔로, 산돼지, Duiker(아프리카산 작은 영양), 코끼리, 하이에나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
- 고릴라 트레킹이 제일 유명하며 입장료는 750불 입니다.
 - 또 다른 희귀종인 야생 Golden Monkey를 볼 수 있는 트레킹도 할 수 있는데, 입장료는 약 25불입니다.

《고릴라 무리의 우두머리 실버백(Silver back)》



나. 뉁웨 국립공원 (Nyungwe Forest National Park)

- 2004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뉁웨 국립공원은 수도 키갈리로부터 남서쪽으로 250km, 차량으로 약 5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.
- 침팬지 트레킹, 원숭이 트레킹, 조류관찰 트레킹, Congo Nile 트레킹 등 다양한 종류의 트레킹이 있으며, 입장료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US 20불~70불입니다.

《구름 낀 뉁웨》



다. 아카게라 국립공원 (Akagera National Park)

- 탄자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광활한 국립공원으로서, 르완다에서는 드문 사바나(열대우림과 사막 중간에 분포하는 열대 초원) 지역입니다.
 - 키갈리에서 동쪽으로 120km, 차량으로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
- 낚시, 사파리, 배를 타고 호수에서 즐기는 수상 사파리를 할 수 있는데, 일반적인 사파리의 경우 약 4시간에서 최장 8시간 정도 걸리며 입장료는 약 20불입니다.

《아카게라 국립공원》



3. 여타 관광지

가. 국립박물관

- 1989년 9월 개관하였으며, 후예(Huye)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
- 르완다의 과거 풍속이나 역사와 관련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르완다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며, 입장료는 약 12불(약 7000르완다프랑) 입니다.

나. 자연사 박물관

- 키갈리의 냐루겐지(Nyarugenge)에 있는 가정집을 개조하여 만들어진 자연사 박물관은 주로 르완다의 동식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
- 입장료는 약 5불(약 3000르완다프랑) 입니다.

다. 고대 역사 박물관

- 르완다의 과거 화려했던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Royal Palace가 있는 루카리(Rukari)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
- 입장료는 약 1.5불(약 1000르완다프랑)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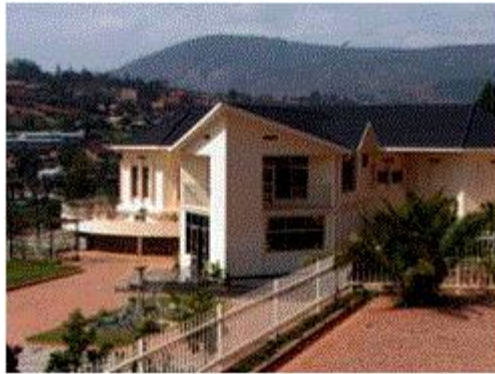
라. 제노사이드 기념관(Genocide Memorial Center)

- 1994년 발생한 르완다 대학살을 추모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노사이드 기념관은 전국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.
- 제일 대표적인 곳은 키갈리 기소지(Gisozi)에 있는 기념관으로서 대학살 10주년을

맞이하여 2004년 개관하였습니다.

- 이 곳에만 약 30만명 정도가 묻혀있다고 하며, 대학살과 관련된 많은 전시물을 갖추고 있습니다.
- 입장료는 약 10불(약 6000르완다프랑) 입니다.

《Gisozi 제노사이드 기념관》



마. 키부 호수(Lake Kivu)

- 르완다의 가장 큰 호수(여의도의 약 931배)로 기세니(Gisenyi), 키부예(Kibuye) 등의 도시들이 호숫가를 따라 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화산국립공원이 위치한 무산제(Musanze)에서 기세니까지는 차로 약 한 시간 거리입니다.
- 하얀 백사장이 펼쳐진 호숫가를 따라 호텔이나 리조트 등이 갖춰져 있고, 호수에서 다양한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, 매년 관광객들의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.

바. 기타

- 르완다 관광청은 주요 대도시를 잇는 시티투어 뿐만 아니라,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"Eco Tourism"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연친화적인 여러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
-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관광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는 르완다관광청 홈페이지 (<http://rdb.rw>/<http://www.rwandatourism.com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/끝/

- 참 고 문 헌 -

1. 개관

<http://rwanda-embassy.or.kr/kr/embassy/ambassador.php> (검색일자: 2월 15일)

http://www.rdb.rw/uploads/tx_sbdownloader/RwandaExportCatalogue.pdf (검색일자: 2월 16일)

2. 국립공원

가. 화산국립공원

http://www.rdb.rw/uploads/tx_sbdownloader/VolcanoesNationalPark_01.pdf
(검색일자: 2월 16일)

나. 늑웨국립공원

http://99.198.127.194/~rwanda/cms2/index.php?option=com_content&view=article&id=66&Itemid=78
(검색일자: 2월 16일)

다. 아카게라국립공원

http://99.198.127.194/~rwanda/cms2/index.php?option=com_content&view=article&id=87&Itemid=77
(검색일자: 2월 16일)

3. 기타 관광지

가. 박물관

나. 제노사이드기념관

다. 고대역사박물관

라. 제노사이드 기념관

<http://www.mapsofworld.com/rwanda/tourism/attractions.html> (검색일자: 2월 13일)

마. 키부호수

<http://www.mapsofworld.com/rwanda/tourism/lake-kivu.html>(검색일자: 2월 13일)

바. 기타

<http://www.mapsofworld.com/rwanda/tourism/eco-tourism.html>

<http://www.mapsofworld.com/rwanda/tourism/city-tours.html> (검색일자: 2월 9일)

<도서>

'RWANDA', Bradt travel guides - Janice Booth

/ 끝 /